

성차별 관행도 약으로 써라

도 양이 배운 것은 '은근과 끈기'다. 도 양은 하루아침에 근무조건이 자신을 비롯한 모든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는 기적이 없을 바에야 차근차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 세대에 안되면 다음 세대에 라도'라는 마음을 늘 간직했다고 한다.

"물론 제 윗대들에 비하면 저도 편안하게 지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늘 첫발자국을 찍는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2년 남짓되는 대기업 여사원 생활을 지금 있는 외국인은행으로 옮겨오면서 종지부 찍었지만 도 양은 그렇다고 첫직장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일단 일하는 동안에 한번도 나태한 자세를 가진 적은 없었고 최소한 우리로 인해 '여자를 뽑아봤자...'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도 양 뒤에 입사한 여직원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90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3년을 보낸 김윤선(28) 양도 남다른 '남녀차별 극복기'를 가지고 있다.

3남1녀의 외동딸로 온가족의 총애를 받으며 성장하고 여대를 졸업한 김 양은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남녀차별보다는 오히려 여존남비라는 단어를 더 자주 떠올리며 학창시절을 보냈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김 양의 성격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판단을 종합해 볼 때 '고집 세고 거만한 20대 초반의 미인'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스포츠용품을 수입하

는 무역회사에서 겪은 남사원들과의 부대끼는 김 양에게 생존을 위한 전면적인 체질개선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여자라고 힘든 일은 시키지도 않고 간단한 서류정리나 하게 하더군요. 퇴근 후에는 돌아가면서 저녁식사를 대접한다고 나서기도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 이익사회의 조직구성원에 포함된 여성들의 수가 아직 열세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면 같은 이유로 남성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쉽게 돈보일 수 있는 장점도 없지 않다.

'여자가...'라는 말로 김 양의 행동에 차츰 꼬리표를 달며 제약을 가하기 시작했고 힘든 것을 하지 않는 대신 힘들지 않은 사소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조건부식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희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수입한 물건이 들어오면 평직원이나 간부들이나 다같이 포장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운송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하려고 해도 극구 말리더니 나중에는 이런 것 안하는 대신 재떨이를, 커피를, 세금계산을 하라고 주문하더군요."

김 양은 그런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직접 하세요'란 양칼진 신경질로 한두번 거절하기도 했지만 결국 직장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느 한 가지 즉 남자와 똑같이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남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 대신 잡일을 하느냐를 선택해야만 했다.

그래서 김 양은 말쑥한 옷차림을 한 사무실의 액세서리로 취급받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한 직업여성으로 자리를 굳혀야겠다는 결론과 만났다.

"공항에서 짐을 실어 나르기

도 하고 거래처에 물건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사실 처음에는 좀 창피했어요.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대충 시간때우기로 보낼 수 있었는데라는 당치 않은 후회도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힘겹게 그런 몇달을 보낸 후에 놀라울 만큼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 양은 그러면서 차츰 자신도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남자들과 다른 단일한 업무내용이 얼마나 자신을 도태시켜 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지금은 제가 커피라도 끓여주면 남자사원들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해요. 저도 그전과는 달리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게 됐어요."

여성들뿐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딪혀오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여성들에게는 그것과 더불어 '성차별'이라는 반갑지 않은 덤이 따라붙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익사회의 조직구성원에 포함된 여성들의 수가 아직 열세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요구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면 같은 이유로 남성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쉽게 돈보일 수 있는 장점도 없지 않다.

다만 그것을 장점으로 살리느냐 아니면 단점으로 매장시켜 버리느냐는 여성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주변사람들을 설득시키며 극복의 지혜를 찾아나가는 나에 달려 있는 것이다.